

Online Series

2023. 09. 11. | CO 23-29

북한 정권수립일(9.9절) 기념행사에서 주목되는 세 개의 시선

정은미(북한연구실장)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지난 며칠 동안 개최되었다. 중국은 당·정부 대표단을, 러시아는 군대 협주단을 보내 친선관계를 과시하였다. 9월 9일 새벽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대표하는 노동적위대가 이끄는 민방위무력 열병식이 거행되었다. 열병식에 선보인 생활밀착형 위장 무기들이 눈길을 끌었다. 정권수립일 노동신문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베트남 총비서와 주석이 보낸 축전들이 실렸다. 북한 곳곳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축하공연들이 열렸다. 이번 정권수립일이 5년 주기의 정주년에 해당하지만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념행사들은 크게 요란스럽지 않게 진행됐다. 이번 9.9절에 시선이 가는 세 가지 장면은 다음과 같다.

시선 하나. 격보다 실리를 중시한 북중, 북러 관계

북한의 정권수립일 75주년을 맞아 중국은 류귀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당·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2018년 정권수립일 70주년에는 리진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표단의 급은 낮아졌다. 하지만 중국 대표단이 전달한 메시지나 시진핑이 보낸 축전은 현재 북한이 가장 절실한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중국 대표단과의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동지들이 공화국 창건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국경절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며 “습근평 동지와 중국 당과 정부가 조중관

계의 특수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이어 북한 매체는 담화가 “시종 동지적 우의가 차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여러 분야의 협조와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북중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조는 9월 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시진핑이 보낸 축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축전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국 대표단 단장인 류귀중 부총리가 흑룡강성 출신으로 길림성 성장을 역임한 경제 및 행정전문가라는 점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담화 분위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간 무역이 확대되고, 파견되는 노동력의 수가 증가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군대 협주단(알렉산드로브 명칭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만 파견했을 뿐 별도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5년 전 9.9절 70주년 때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방북했던 점과 올해 7.27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했던 것을 비교하면, 이번 9.9절 75주년에 군 협주단만 파견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 아마도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는 실리를 중시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9.9절에서 보여준 북-중 그리고 북-러의 친선관계는 격보다는 실리가 더 우선하며, 향후 북중러의 관계가 더 밀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무대였다.

시선 둘. 김덕훈 내각 총리의 견재

지난 8월 21일 김정은은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수해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간석지 제방 배수 구조물 설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와 간석지 농경지 대부분이 침수되었다. 이때 김정은은 “최근 몇 년 어간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새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며 “내각총리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비뚤어진 관점에도 단단히 문제가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북한 매체가 최고위급 간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의 경질 또는 숙청을 예고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김덕훈 총리에 대한 김정은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김덕훈 총리는 경질되지 않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김 총리의 활동량과 범위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는 계속해서 총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권수립일(9.9절)을 기점으로 김덕훈 총리의 활동은 크게 늘어났다. 예방한 중국 당·정부 대표단을 만났고, 9.9절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섰다. 그는 보고에서 김정은 정권 10년을 “나라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제재봉쇄를 타파하고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 가장 위대한 결실을 이룩”하였으며, “미제가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칭송하였다.

2주 전만 해도 최고지도자에게 실명으로 신랄하게 비판받았던 내각 총리가 바로 경질되거나 숙청되지 않고 정부의 중요 행사를 이끄는 것은 분명히 이전 시기와 다른 김정은의 인사 통치인 것이 사실이다. 정권수립일 75주년이라는 큰 국가적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진두지휘해 온 최고위급 간부를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중요 경제사업에 대한 군대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각 간부들의 쇄신을 다그치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내각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를 실명 비판한 것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9.9절을 통해 김덕훈 내각 총리의 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인재 중시라는 김정은의 인사 통치술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정치 기획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시선 셋. 점점 대중에 가까워지고 있는 김주애의 행보

북한 매체에서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호칭되는 김주애의 행보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화성-17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김주애는 패딩 차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사인(私人)의 모습에 가까웠다. 하지만 며칠 후 11월 26일에 화성-17 발사 성공 기념촬영식에 김정은과 다시 나타난 김주애는 격식있는 옷차림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때 조선중앙TV는 국방과학원장 장창하와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이 김주애에게 깍듯이 허리 굽혀 악수를 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2023년 들어 김주애의 행보는 더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무대로 옮겨졌다. 김주애는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서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

과감한 행동을 하며 백두혈통의 ‘특별’ 지위를 과시하였다. 이어 8.28 해군절을 맞아 김주애는 김정은과 함께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군 사열을 받았고, 해군사령관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았으며, 김정은과 함께 작전계획을 보고받았다.

정권수립일(9.9절) 75주년 기념식에 나타난 김주애의 등장은 이전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김주애가 이제까지 김정은과 동행한 곳들은 군(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9.9절 열병식이 노동적위대 중심의 민방위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적위대는 엄연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인민대중이다. 따라서 9.9절 기념식을 기점으로 김주애의 행보가 군대에서 인민대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